2011년 프랑스 (신선)굴 가격 상승

프랑스는 세계에서 (신선)굴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 중 하나이며, 연간 1인당 평균 2kg의 굴을 먹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009년 프랑스는 112,600톤의 굴을 생산하였으나 2010년과 2011년 굴 생산량은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8년에서 2011년 사이 어린 굴의 폐사량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른 결과이다.

프랑스인의 신선 굴 소비량은 2009년에 비해 2010년 약 15% 감소하였고, 이는 총 거래량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생산량의 감소는 자연스럽게 굴의 가격 상승을 가져왔고, 이는 전년에 비해 1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French national observatory에 의해 2011년 9월에 발행된 Ifremer 리포트에서 2011년 8월 이후 어린 굴의 폐사량은 예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발표하였다.

2011년 굴 판매를 위해 새롭게 선택된 '굴 종자'들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면역력이 강한 '굴 종자'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언급하였다.

프랑스인들은 특히 많은 행사가 몰려있는 12월에 최상품 굴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때 팔리는 굴 소비량은 전체의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소비자의 높은 구매는 자연스럽게 굴 가격 상승을 불러오고 있다. 프랑스는 2010년 6,000톤의 굴을 수입하였으며, 이는 2009년에 비해 약 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프랑스는 연간 평균 9,800톤의 굴을 수출하고 있으며 2011년 굴의 수입량은 전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제공: www.thefishsite.com

Issue date: 2011/11/22